

보 도 설 명 자 료

('21. 11. 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겨울철에도 태양광발전은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며
지난 12~2월 태양광발전의 피크시간 발전비중은 약 8%임
(11.26일자 서울경제 「올겨울 '전력한파' 넘겼지만.. 신재생확대에
'블랙아웃' 우려 매년 커진다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-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겨울철 '블랙아웃' 우려 매년 증가
 - 겨울철 태양광 피크기여도 0.4%에 불과하여 태양광 무용론 제기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전력시장外 태양광 발전량을 추계한 결과, 실제 피크시간 총수요 중 태양광발전 비중은 겨울철 평균 약 8.0%로 추산

* 여름철 7~8월 평균은 약 10.4%

	'20.12월	'21.1월	'21.2월
전력시장 內 (전력시장 참여)	1.1%	1.1%	1.8%
전력시장 內+外 (전력시장 참여+한전PPA+자가용)	7.3%	6.8%	10.2%

- 겨울철에도 한전PPA·자가용 태양광발전이 총수요를 상쇄함에 따라 전력시장 수요상 전력피크 시간의 이동 현상 발생

* 전력시장내 피크시간 : (여름) 14~15시 → 16~17시, (겨울) 10~11시 → 9~10시

- 산업용 난방수요가 증가하는 10~11시의 전력소비를 상쇄하는 효과

- 정부는 올겨울에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

※ 문의 :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(044-203-3880) / 박환준 사무관(3886)